

낙조와 야경이 아름다운 곳, 진도. 특히 진도대교 밑의 회오리 물살은 다른 곳에서는 쉽사리 볼 수 없는 풍경이라 사람들은 해질녘에 달리던 차를 멈추고 붉은 빛이 감도는 다리 아래 물살을 한참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울돌목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중의 하나인 명량대첩으로 잘 알려진 곳으로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입니다. 물살이 빠르고 물 흐르는 소리가 요란하여 바닷목이 우는 것 같다 하여 ‘명량(鳴梁)’, 즉 ‘울돌목’이라고 합니다. 마침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바라보고만 있기에 무섭고 어지러운 물살에서 사납게 요동치는 물소리가 멀리까지 울려대니 함께 갔던 사람들 모두가 어느새 말을 잃고, 얼굴 표정까지 지운 채 그저 바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바다였지만 피서지나 휴양지의 활기차고 낭만적인 바다와는 전혀 다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이었습니다.

소위 고전이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 시대적·사회적·공간적 배경도, 상황도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400여 년이 훨씬 지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난중일기’를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진도 팽목항, 맹골수도 그리고 세월호.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몸서리치던 기억이 이제는 서서히 잊히고 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어떤 이들은 회오리 물살을 이용해 12척의 병선으로 왜선 133척을 무찔렀다는데, 2014년 4월 16일 어떤 이들은 그 물살 사나운 곳에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많은 생명을 두고 자신들만 빠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침몰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경 구조선도 헬기도 적극적으로 않았습니 다. 그 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여러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비리 덩어리임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고 실의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힘을 내어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은 작년 봄의 일을 어찌 생각할까요? 이순신 장군은 23년의 공직 생활 중 3번 파직을 당했고, 1번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2번 백의종군을 했다고 합니다. 부당한 것을 명령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어 거부한, 스스로 옳다고 믿는 신념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올바른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공적으로는 어떤 결과와 영향력을 가져오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각 학교 교정에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동상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었을 것입니다. 울돌목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을 정의롭고 지혜로운 무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니 달빛 가득한 배 위에 혼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 못 이루었을 험난한 시대의 한 평범한 인간도 보입니다. ‘나라의 정세가 아침 이슬처럼 위태로운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한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 잡을 만한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다.’라는 4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의 염려와 탄식이 지금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작년에 ‘명량대첩 해전재현 승전무대’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명량대첩축제가 벌어지는 이곳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바탕으로 한 축제인 만큼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화 흥행의 힘도 있고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여름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명량대첩을 기적이나 신화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적군과 비교했을 때 숫자상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군 승리의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만 기적이나 신화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난중일기’에는 ‘관청에 나가 업무를 보았다’, ‘활을 쏘았다’, ‘군사와 무기를 검열하였다’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의 성실함,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장군의 자(字)인 ‘여해(汝諧)’는 ‘너라야 세상을 화평하게 하리’라는 뜻이고, ‘순신(舜臣)’이라는 이름은 중국을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임금 중 한 명인 순 임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제 때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다 짧은 생을 살다간 시인과 이름이 같습니다. 저도 이순신 장군처럼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것을 진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짐했습니다.